

工業化에 대한 農村의 貢獻*

—龜尾工團에 대한 勞動力供給을 중심으로—

黃 弘 道 · 李 正 漢

각각 慶尙大學 助敎授 및 敎授

* 本研究는 韓國農村經濟研究院으로부터 委託받은 研究用役事業의 結果를 일부 발췌한 것임.

- I. 序 論
- II. 出身背景別 就業現況分析
- III. 出身背景別 勞動供給圈과 勞動供給의 特性
- IV. 出身背景別 從業員의 性格分析
- V. 農家出身 從業員의 農家背景과 移動性向
- VI. 結 論

I. 序 論

1. 問題의 提起

최근 農家所得增大와 農·工間의 均衡發展을 推進하기 위한 政策課題로서 農村의 工業化 問題를 政策當局에서 검토하고 있다. 農村의 工業開發은 분명히 農村地域에서 새로운 勞動需要를 創出하여 農村勞動力의 就業機會를 擴大하고, 農村勞動力의 都市集中 現象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農外所得을 增大시켜 農家所得增大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現實的 與件을 보면 農村의 工業開發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問題는 技術人力과 高級人力을 農村에서 어떻게 確保하느냐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技能人力이 상대적으로 부족

한, 農村地域에서 과연 工業化에 필요한 이러한 人力을 供給할 수 있을 것인가?

또한 지금까지 農業生産活動에만 종사하여 왔던 農業勞動力을, 특히 長年層과 婦女子의 農業勞動力을 工業部門에서 얼마 만큼 흡수할 수 있을 것인가. 이와 같은 根本的인 問題는 農外所得增大를 위한 農村의 工業化政策 課題로서 신중히 연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本研究는, 農村의 工業發展에 따른 고용증대가 현실적으로 “어느 지역의 누구”에게 就業機會를 주었는가, 혹은 어느 部門이 工業化에 어떻게 그리고 얼마 만큼 勞動力을 供給하였는가, 또한 이들은 어떤 性格의 勞動力인가를 究明하려고 했다. 이에 따라 本研究가 구체적으로 시도하는 바는 다음과 같았다. 즉,

- (1) 農村工業勞動力의 出身背景을 파악하여 出身背景別 고용효과를 究明하고,
- (2) 出身背景別 勞動供給地域과 勞動力의 性格을 파악하여,
- (3) 農村工業部門에 農村勞動力의 就業機會를 擴大하기 위한 基本方向을 提示하려고 했다.

2. 調査研究方法

가. 標本事業體 現況

本研究는 龜尾 工業團地를 하나의 事例研究 對象地域으로 선정하였다. 龜尾工團은 1969년 3월부터 龜尾地域 洛東江 沿邊에 造成되기 시작하여, 1978년 12월말 현재 總 3,782千坪의 大單位 工業團地가 造成되었다. 여기에는 勞動集約的인 電子工業 部門과 섬유·직물부문 등 總 138個 事業體가 入住稼動하고 있으며, 이들 事業體는 總 40,666名의 從業員을 고용하고 있다(表 1).

나. 標本調査事業體 選定과 標本調査從業員의 規模.

1) 標本調査事業體 選定基準

龜尾工團에 入住稼動하고 있는 全 事業體를 母集團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選定基準에 의지, 15개 標本事業體를 産業部門別로 有意抽出하였다(表 1).

表 1 標本事業體現況과 標本從業員의 規模

사업 부문	공단 입주 가동사업체*		표본조사사업체		표 본 중 업 원	표 본 추 출 율
	업체 규모	고용규모	업체 규모	고용규모		
전 자	개소 53	인 23,163	개소 7	인 1,424	인 820	% 57.6
섬유및직물	74	15,497	6	951	524	55.1
기타제조업	11	2,006	2	558	325	58.2
계	138	40,666	15	2,933	1,669	56.9

*1978. 12. 31 현재 공단입주 가동 사업체.

資料: 구미수출산업공단, 「구미공업기지 현황」, 1978. 12.

- (1) 1977년 12월 이전에 入住稼動한 事業體.
- (2) 從業員規模가 50人 이상 300人 이하의 事業體.
- (3) 技能工의 比重이 상대적으로 큰 事業體.
- (4) 1977~1978년 기간 동안 휴업한 사실이 없는 事業體, 그리고 月別雇傭人員의 增減幅이 적은 事業體.

2) 標本從業員의 規模

〈表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5個 標本事業體가 雇傭하고 있는 2,933名의 從業員 중 1,669名의 從業員을 無作爲로 선정하여 記帳조사를 실시하였다.

II. 出身背景別 就業現況分析

1. 出身背景別 雇傭現況

龜尾工團에 就業하고 있는 從業員의 出身背景을 파악하여 出身背景別 雇傭效果를 分析하기 위하여, 從業員의 出身背景을 다음과 같이 分類하였다.

첫째, 從業員의 出生地와 成長地域을 基準으로 하여 都市出身과 農村出身으로 大分類하고,

둘째, 農村出身을 다시 부모 또는 호주의 현재 직업을 기준으로 하여 農家出身과 非農家出身으로 中分類하고,

셋째, 農家出身 從業員을 다시 就業形態를 基準으로 하여 農家에서 居住하면서 출퇴근 취업을 하고 있는 在村農家出身과 農家を 떠나서 就業하고 있는 離村農家出身으로 細分하였다.

이와 같은 分類基準으로 중업원의 출신배경을 파악하여, 出身背景別 雇傭效果를 〈表 2〉와 같이 분석·정리하였다.

總 1,669名의 標本從業員 중에서 79.5%에 해당하는 1,327명은 農村出身 勞動力이었고, 나머지 20.5%에 해당하는 342명은 都市出身 勞動力이었다. 한편 農村出身 勞動力을 細分하여 이들의 雇傭效果를 比較·分析해 보면, 總調査 從業員 중에서 離村農家出身은 44.8%, 非農家出身은 20%, 그리고 在村農家出身은 14.7%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農村의 工業開發은 都市

表 2 出身背景別 雇傭現況

出身背景		性 別		計
		男	女	
農村出身	在村農家	80 (32.5) ¹⁾	166 (67.5) ¹⁾	246 (14.7) ²⁾
	離村農家	189 (25.3)	559 (74.7)	748 (44.8)
	非農家	100 (30.0)	233 (70.0)	333 (20.0)
	計	369 (27.8)	958 (72.2)	1,327 (79.5)
都市出身		164 (48.0)	178 (52.0)	342 (20.5)
總計		533 (31.9)	1,136 (68.1)	1,669 (100)

1) ()내의 숫자는 出身背景別 男女別構成比.
 2) ()내의 숫자는 總計 100에 대한 構成比.

出身보다 農村出身 勞動力에 대한 就業機會를 擴大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특히 離村農家出身 勞動力의 雇傭增大에 가장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現象은 農外所得增大라는 觀點에서 볼 때 農村의 工業化政策에 하나의 重要한 問題를 야기시키고 있다. 農村의 工業開發에 따른 農村勞動力의 雇傭增大 效果가 바로 農外所得增大에 연결되려면, 무엇보다도 工團에 就業機會를 얻기 위한 農村勞動力의 流出形態가 離村就業形態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農家에서 居住하면서 工團에 出退勤就業을 할 수 있는 通勤就業形態로 나타나야만 될 것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農家에서 出退勤 就業하고 있는 在村農家出身 從業員에 대한 雇傭效果는 가장 적게 나타나고 있다. 물론 農村勞動力의 工團就業機會가 離村形態로 나타난다고 해도 賃金收入 中 일부를 농가에 送金한다면 農外所得增大에 기여하는 것으로 볼 수는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龜尾工團에 就業하고 있는 技能工의 경우, 最低 4萬원에서 最高 8萬원의 賃金を 받고 있으므로, 이러한 賃金收入 中에서 生活비, 醫복비 및 용돈을 제외하면 每月 가족에게 送金할 수 있는 금액은 극히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니까 龜尾工團의 경우, 在村農家出身 從業員에 대한 雇傭效果가 離村農家出身보다 월등히 낮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農村勞動力의 雇傭增大 만큼이나 農外所得 增大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農外所得增大의 觀點에서 볼 때 農村의 工業化에 따른 農村勞動力의 離村就業形態를 在村就業形態로 方向轉換할 수 있는 基本對策이 무엇인가를 農村의 工業化政策 課題로서 신중히 검토해야 될 것이다.

2. 出身背景別 性別 就業現況

出身背景別 從業員의 性別 就業構造를 分析해 보면, <表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總調查從業員 中에서 68.1%가 女子從業員이었고, 나머지 31.9%는 男子從業員이었다. 특히 農村出身 女子勞動力에 대한 就業機會는 크게 擴大되어, 農村出身 從業員 中에서 女子 從業員이 무려 72.2%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農村의 男性勞動力에 대한 就業機會는 都市出身 男性勞動力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여 주고 있다.

이와 같이 農村女性勞動力에 대한 就業機會의 擴大現象은 지금까지 工業部門의 就業機會가 극히 적었던 農村女性에게 生業進出의 機會를 크게 擴大하여 주었으므로, 農村의 工業化는 農家立場에서 볼 때 새로운 農外所得源을 개발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와 같이 女性勞動力을 중심으로 고용 증대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農村의 工業化는 農家立場에서 보면 農外所得增大를 위한 항구적인 政策手段으로는 볼 수 없다. 왜냐 하면 대부분의 女子從業員은 25세를 전후해서 결혼 또는 결혼준비 관계로 퇴직하는 現象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農外所得增大 觀點에서 볼 때 農村의 工業化는 男性勞動力에 대한 就業機會를 擴大할 수 있는 業種을 誘致하고 擴大해야 될 것으로 본다.

3. 出身背景別 職種別 就業現況

龜尾工團은 工業部門의 生産活動에 필요한 技術・技能人力에 대한 勞動需要를 크게 擴大하였기 때문에, <表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總調查 從業員 중에서 87.1%가 技術・技能職種에 就業하고 있다. 따라서 農村出身 勞動力도 技術・技能職種에 就業機會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農村地域은 技能人力이 부족하고 高等技能人力 또한 不足하여, 農村出身 勞動力은 都市出身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技術習得 過程에 있는 反숙련공과 견습공으로 주로 많이 취업하고 있다. 반면에 都市出身 勞動力은 農村出身에 비하여 上位職이라 할 수 있는 사무직과 기술직에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율을 보여 주고 있다.

이와 같이 農村出身 從業員이 下位職에 就業하고 있는 현상을 農村出身 背景別로 세분하여 比較・分析해 보면, 在村農家出身은 離村農家出身과 非農家出身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견습공과 잡급직에 주로 많이 취업하고 있었고, 이와 반면에 離村農家出身은 他出身 從業員에 비하여 숙련공과 反숙련공으로, 非農家出身은 숙련공과 견습공으로 각각 주로 많이 취업하고 있다. 이와 같이 在村農家出身은 他出身 勞動力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下位職種에 가장 많이 취업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근본적으로 工團周邊 農村의 勞動力 중 技能人力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農村의 工業開發에 따른 工團周邊 農

表 3 職種別 從業員의 就業現況

單位：%(人)

出身背景	事務職	技術職	技能職				雜給職	計
			熟練工	半熟練工	見習工	小計		
農村出身	在村農家	4.0	16.7	30.9	16.3	19.9	67.1	100(246)
	離村農家	4.3	14.6	41.4	17.9	16.6	75.9	100(748)
	非農家	4.6	17.4	36.6	16.5	17.7	70.8	100(333)
計	4.2	15.7	38.3	17.3	17.5	73.1	100(1,327)	
都市出身	13.4	23.7	37.7	8.8	10.5	57.0	100(342)	
總計	6.1	17.3	38.2	15.5	16.1	69.8	100(1,669)	

村勞動力의 就業機會를 擴大하고 또한 上位職種으로 擴大하려면, 米숙련노동력이나 기능인력이 부족한 農業勞動力에 대한 技能人力 開發對策을 農村의 工業化政策 課題로서 연구검토해야 될 것이다.

Ⅲ. 出身背景別 勞動供給圈과 勞動供給의 特性

앞에서 出身背景別 從業員의 就業現況을 比較・分析하였다. 여기서는 이들 勞動力의 供給地域과 勞動供給의 特性을 分析하고자 한다.

<表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工團就業 이전에 從業員의 前居住地域을 分析해 보면, 工團周邊地域에서 總調查從業員의 47%에 해당하는 764명의 勞動力을 供給하여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었고, 그 다음의 勞動供給地域으로 工團周邊地域 이외의 경북지역에서 17.5%, 대구시에서 15.3%, 他道地域에서 14.9%, 그리고 서울, 부산 등 大都市에서 5.3%를 각각 供給하고 있다.

특히 上位職에 해당하는 사무직과 기술직의 종업원은 기능직과 잡급직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大邱를 비롯하여 서울, 釜山 등 대도시지역에서 가장 많이 공급되고 있었다<表 5>.

이와 같이 農村의 工業發展에 따른 勞動供給

表 4 工團就業以前居住地域別 從業員 現況
단위 : 人

出身背景	慶尙北道				他道地域	서울, 부산	計	
	I	II	III	小計				
農村出身	在村農家	181 (75.1)	8 (3.3)	29 (12.0)	218 (9.4)	18 (7.5)	5 (2.1)	241 (100)
	離村農家	327 (45.2)	70 (9.7)	171 (23.7)	568 (78.6)	127 (17.5)	28 (3.9)	723 (100)
	非農家	155 (47.9)	44 (13.6)	64 (19.8)	263 (81.3)	48 (14.9)	12 (3.8)	323 (100)
計	663 (51.5)	122 (9.5)	264 (20.5)	1,049 (81.5)	193 (15.0)	45 (3.5)	1,287 (100)	
都市出身	101 (30.0)	126 (37.4)	20 (5.9)	247 (73.3)	49 (14.5)	41 (12.2)	337 (100)	
總計	764 (47.0)	248 (15.3)	284 (17.5)	1,296 (79.8)	242 (14.9)	86 (5.3)	1,624* (100)	

*5명의 從業員이 未응답.

()내 숫자는 100에 대한 구성비.

I : 구미시, 선산군, 칠곡군, 금릉군, 김천시, 성주군, 군위군, 의성군, 상주군(공단주변지역)

II : 대구시

III : 공단주변지역 이외의 경북지역

表 5 職種別 工團就業以前 居住地域分布

단위 : %

職種別	慶尙北道				他道地域	서울, 부산	計
	I*	II*	III*	小計			
事務職	27.5	39.2	10.8	77.5	10.7	11.8	100.0(102)
技術職	43.7	12.6	12.6	68.9	20.5	10.6	100.0(302)
技能職	48.0	14.4	20.1	82.5	13.9	3.6	100.0(1,110)
雜給職	64.6	9.1	10.9	84.6	13.6	1.8	100.0(110)

*〈表 4〉와 같음

圈은 工團이 소속하고 있는 慶北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他道地域과 大都市까지 擴大되고 있다. 그러나 工團의 勞動供給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地域은 工團周邊地域임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런데 工團周邊地域에서 供給된 508명의 農家出身 從業員 중에서 35.6%는 在村農家出身이고, 그 나머지 64.4%는 離村農家出身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工團周邊地域에서 離村農家出身 從業員의 比重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工團과 그 周邊 農村地域間을 연결하는 道

路網과 交通網 등 農村의 外部經濟가 非效率의 으로 開發되어, 결과적으로 이러한 工團周邊地域에서 거주하는 從業員은 工團의 周邊地域內部에서 居住地 變更形態로 地域的 移動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農村의 外部經濟가 효율적으로 개발되었다면, 離村農家出身 從業員 중에서 45.2%에 해당하는 327명의 從業員은 在村農家出身으로 轉換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農村의 外部經濟開發은 農村勞動力의 出退勤就業圈을 확대하는 중요한 政策手段이므로, 農村의 工業開發은 이러한 問題를 農外所得 增大의 觀點에서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 工團으로 就業機會를 얻기 위하여 流入되고 있는 勞動力의 地域的 移動現象을 分析해 보면, 農村勞動力의 地域的 移動經路(農村→都市→農村)를 통한 歸鄉移動 現象과 더불어 도시에서 농촌지역으로 都市勞動力의 逆流移動 現象을 보여 주고 있다.

〈表 4〉에 의하면 工團開發 이전에 大邱, 서울, 釜山 및 그 밖의 도시로 離村하였다가, 工團에 就業機會를 얻기 위하여, 귀향이동한 在村農家出身은 24.9%를 차지하고 있었다. 반면에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였다가 工團에 就業機會를 얻기 위하여 農村地域으로 귀향은 하였지만 타 지역의 농촌으로 이동한 현상을 보면 離村農家出身과 非農家出身 從業員 중에서 각각 13.6%와 17.4%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工團에 就業機會를 얻기 위하여 도시에서 농촌지역으로 流入한 都市出身은 大邱市에서 37.4%, 공단주변 도시에서 3.0%, 서울, 釜山을 비롯한 他道地域의 도시에서 26.7%를 각각 차지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都市勞動力의 逆流移動 現象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험적 사실을 통해서 볼 때, 농촌의 공업화는 분명히 農村勞動力의 大都市集中 현상을 억제하고, 또한 도시로 이동하였던 農村勞動力의 귀향이동을 비롯하여 都市勞動力의 逆流移動을 誘引하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都市人口分散에도 기여하고 있었다고 하겠다.

Ⅳ. 出身背景別 從業員의 性格分析

Ⅱ章에서 出身背景別로 雇傭效果를 分析하였고, Ⅲ章에서는 이들 勞動力의 供給地域을 分析하는 한편 移動性向을 검토하였다. 여기서는 이들 勞動力의 基本性格을 究明하여, 農村出身 勞動力의 就業機會를 制約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出身背景別로 연령, 教育수준 및 前職業 등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1. 年齡別 就業現況

年齡階層別로 從業員의 就業構造를 分析해 보면, <表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男子從業員은 19세 미만에서 29세까지의 年齡層에서, 女子從業員은 19세 미만에서 24세까지의 年齡層에서 각각 가장 많이 취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을 出身背景別로 비교·분석해 보면, 農村出身 男子從業員은 19세 미만에서 29세까지의 年齡層에서, 都市出身 男子從業員은 20세에서 34세까지의 年齡層에서 각각 가장 많이 취업하고 있다.

이와 반면에 女子從業員은, 都市出身과 農村出身間에 뚜렷한 차이를 나타냄이 없이, 19세 미만에서 24세까지의 年齡層에서 각각 가장 많이 취업하고 있다.

表 6 出身背景別 年齡別 從業員의 分布

단위: %

출신배경	성별	19세 미만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세 이상	계
농촌	제촌농가(A)	남 27.5	30.0	27.5	8.8	2.5	3.7	100(80)
	여 54.2	38.6	1.8	0.6	3.0	1.8	100(166)	
	계 45.5	35.8	10.2	3.3	2.8	2.4	100(246)	
촌	이촌농가(B)	남 21.7	27.5	27.0	14.8	5.3	3.7	100(189)
	여 58.5	37.7	1.1	0.7	1.6	0.4	100(559)	
	계 49.2	35.2	7.6	4.3	2.5	1.2	100(748)	
출비	농가(C)	남 41.0	26.0	15.0	9.0	3.0	6.0	100(100)
	여 49.8	31.8	5.6	5.6	2.1	5.2	100(233)	
	계 47.1	30.0	8.4	6.6	2.4	5.4	100(333)	
신	소(A+B+C)	남 28.2	27.6	23.9	11.9	4.1	4.3	100(369)
	여 55.6	36.4	2.3	1.9	2.0	1.8	100(958)	
	계 48.0	34.0	8.3	4.7	2.6	2.4	100(1,327)	
도시출신	남 9.1	18.3	30.5	22.6	7.9	11.6	100(164)	
	여 36.0	48.9	2.8	2.8	5.1	4.5	100(178)	
	계 23.1	34.2	16.1	12.3	6.4	7.9	100(342)	
총	남 22.3	24.8	25.9	15.2	5.3	6.5	100(533)	
	여 52.6	38.4	2.4	2.0	2.5	2.1	100(1,136)	
	계 42.9	34.0	9.9	6.2	3.4	3.6	100(1,669)	

()내의 숫자는 종업원수.

그런데 특이한 사실은 19세 미만에서 29세까지, 연령계층이 높을수록, 농촌출신 남자종업원의 就業率은 減少趨勢를 보여 주었고, 이와 반면에 都市出身 從業員의 就業率은 增加趨勢를 보여 주고 있다. 특히 30세 이후부터는 농촌출신 男子從業員의 就業率이 매우 빠르게 減少되었는데, 이 중에서 在村農家出身 男子從業員의 減少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반면에 30세 이후 도시출신 男子從業員의 就業率은 완만한 감소추세를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農村에 남아 있는 30세 이상 長年層의 勞動力 중에는 技能人力이 부족하고 또한 教育水準도 낮기 때문에 工團의 工業勞動力으로 職業을 轉換하는데 크게 制約을 받기 때문이다. 특히 農家經營面에서 볼 때 30세 이상의 農業勞動力은 經營主의 성격을 갖고 있거나 또는 農業生産活動의 中心勞動力일 것으로

表 7 出身背景別 教育水準別 從業員의 分布

단위 : %

출신 배경		남 자					여 자					평 균				
		국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계	국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계	국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계
농촌출신	재촌 농가	7.5	51.3	41.3	—	100.0	31.1	52.1	21.8	—	100.0	20.0	51.8	28.2	—	100.0
	이촌 농가	18.4	36.2	42.7	2.7	100.0	36.7	52.9	10.4	—	100.0	32.2	48.7	18.4	0.7	100.0
	비농가	16.0	47.0	33.0	4.0	100.0	37.8	48.5	13.7	—	100.0	31.2	48.0	19.5	1.2	100.0
	평균	15.4	42.4	39.7	2.5	100.0	35.1	51.7	13.2	—	100.0	29.7	49.1	20.5	0.7	100.0
도시출신		7.3	28.8	48.5	15.3	100.0	40.4	38.2	20.8	0.6	100.0	24.7	33.7	34.0	7.6	100.0
총 계		12.8	38.3	42.4	6.5	100.0	35.9	49.6	14.4	0.1	100.0	28.6	46.0	23.3	2.1	100.0

판단된다. 따라서 이들 노동력은 工業部門으로 職業을 轉換하려는 轉職性向도 낮을 것이고, 다른 한편 工業部門에서 이들 勞動力을 흡수할 만한 就業分野도 극히 제약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여자종업원의 경우에 24세까지 就業率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가, 25세부터는 就業率이 뚜렷이 減少하는 추세를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25세부터가 女子의 婚姻適齡期여서 퇴직경향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25세 이후로 도시출신 여자종업원보다 農村出身 女子勞動力의 就業率이 상대적으로 낮은 현상은 도시여성에 비하여 農村女性이 早婚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2. 教育水準別 就業現況

從業員의 教育水準의 차이가 工團就業機會와 就業職種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究明하기 위하여 <表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出身背景別로 教育水準을 比較·分析하였다.

都市出身 男子從業員은 高卒出身이 48.5%로 가장 많았으나, 大卒出身도 15.3%를 차지하고 있었다. 반면에 農村出身 男子從業員은 中卒과 高卒出身이 각각 42.4%와 39.7%로 가장 많았으나, 國卒이하 出身은 15.4%를 차지하고 있

었다.

이와 같이 農村出身 男子從業員의 教育水準이 都市出身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要因은 離村農家와 非農家出身 從業員 중에는 國卒 이하 出身이 都市出身보다 상대적으로 많고, 在村農家와 非農家出身의 從業員 중에는 中卒出身이 상대적으로 월등히 많기 때문이다.

한편 都市出身 女子從業員은 農村出身 女子從業員에 비하여 高卒出身과 더불어 國卒이하 出身이 상대적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都市出身과 農村出身間에 女子從業員의 教育水準은 뚜렷한 차이를 보여 주지 않았다. 그러나 在村農家出身 女子從業員의 教育水準은 都市出身 女子從業員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都市出身과 農村出身 從業員間의 教育水準의 差異를 年齡別로 比較·分析해보면, <表 8>에서 보는 바와 같다. 19세미만의 年齡層에서 在村農家出身 從業員의 教育水準은 他出身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었고, 이촌농가와 비농가출신 종업원은 도시출신 종업원보다 낮은 교육수준을 보여 주고 있었다. 그러나 25세 이후부터는 年齡層이 높을수록 都市出身 從業員의 教育水準은 農村出身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30세 이후부터 都

表 8 年齡別 教育水準別 從業員의 分布

연령 계층	재촌 농가					이촌 농가					비농가					도시가 구				
	국졸이하	중졸	고졸	대졸	계	국졸이하	중졸	고졸	대졸	계	국졸이하	중졸	고졸	대졸	계	국졸이하	중졸	고졸	대졸	계
	19세 미만	19.6	58.0	22.3	—	100.0	33.0	56.4	10.6	—	100.0	31.2	56.1	12.7	—	100.0	36.7	44.3	19.0	—
20 ~ 24세	13.8	52.9	33.3	—	100.0	31.8	46.0	21.8	0.4	100.0	19.0	47.0	33.0	1.0	100.0	21.4	66.8	36.8	5.2	100.0
25 ~ 29세	8.0	40.0	52.0	—	10.0	21.1	24.6	50.9	3.5	100.0	35.7	32.1	28.6	3.6	100.0	9.1	21.8	54.5	14.6	100.0
30세 이상	61.9	28.6	9.5	—	100.0	39.7	36.2	20.7	3.4	100.0	54.2	33.3	8.3	4.2	100.0	27.8	27.8	31.1	13.3	100.0

表 9 年齡別 職種別 從業員의 分布

연령 계층	재촌 농가					이촌 농가					비농가					도시가 구				
	사무직	기술직	기능직	장급	계	사무직	기술직	기능직	장급	계	사무직	기술직	기능직	장급	계	사무직	기술직	기능직	장급	계
	19세 미만	7.1	24.1	59.8	8.9	100.0	2.2	12.5	80.4	4.9	100.0	3.8	16.6	74.5	5.1	100.0	10.1	11.4	73.4	5.1
20 ~ 24세	2.3	20.5	61.4	15.9	100.0	4.9	12.9	78.3	3.8	100.0	5.0	14.0	71.0	10.0	100.0	12.8	14.5	65.8	6.8	100.0
25 ~ 29세	—	56.0	40.0	4.0	100.0	8.8	31.6	54.4	5.3	100.0	10.7	25.0	57.1	7.1	100.0	14.5	40.3	38.2	7.3	100.0
30세 이상	—	19.0	76.2	4.8	100.0	10.1	18.3	58.3	13.4	100.0	2.1	22.9	66.7	8.3	100.0	16.5	36.3	42.9	4.3	100.0

市出身 從業員은 農家出身에 比하여 상대적으로 高卒 이상 出身의 勞動力이 크게 나타나고 있었고, 農村出身은 상대적으로 國卒以下出身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出身背景別·年齡別 教育水準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表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세 미만에서 29세까지의 年齡層에서, 在村農家出身은 他出身보다 상대적으로 技術職과 雜給職에, 離村農家와 非農家出身은 상대적으로 技能職에 각각 높은 취업율을 보여 주고 있었다. 이와 반면에 都市出身은 상대적으로 사무직에 높은 취업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나 30세 이후부터 都市出身은 사무직과 기술직의 취업율이 他出身보다 상대적으로 월등히 높게 차지하고 있었고, 農村出身은 기능직과 장급직에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在村農家出身 從業員은 기능직에 상대적으로 월등히 높은 就業率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農村의 工業化에 따른 農村出身 勞動力에 대한 就業機會를 확대하고 또한 上位職으로

볼 수 있는 사무직과 기술직에 就業機會를 확대하려면 30세 이상의 農村勞動力에 대한 직업훈련을 강화하여 기능인력을 양성해야 되고, 또한 農村의 靑少年에 대한 教育訓練을 강화하여 高等技能人력을 배양해야 될 것이다.

3. 從業員의 前職業

從業員의 工場就業 이전의 職業을 分析해 보면, <表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男子從業員은 工場從業員出身과 새로운 經濟활동인구로 참여하는 學生出身이 각각 39.1%와 37.4%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營農從事者出身은 男子從業員 중에서 15%, 女子從業員 중에서 20.1%를 각각 차지하여 상당히 낮은 취업율을 보여 주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을 出身背景別로 比較·分析해 보면 都市出身 男子從業員은 工場從業員出身이, 都市出身 女子從業員은 工場從業員과 學生出身이 각각 가장 많이 취업하고 있었고, 이와 반면에 農村出身 從業員의 경우 工場從業員出身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었고, 營農從事者出身은

表 10 出身背景別 工團就業以前の 從業員의 前職業 現況

단위 : %

출신 배경	성별	학생*	공장종업원	영농종사자	군복무	상업	노동일	공무원	계	
농촌출신	재촌농가	남	17.3	40.0	28.0	10.7	4.0	—	—	100.0
		여	48.1	28.2	23.1	—	0.6	—	—	100.0
		계	38.1	32.1	24.7	3.5	1.7	—	—	100.0
	이촌농가	남	15.3	37.9	23.7	13.6	6.2	1.7	1.7	100.0
		여	34.9	37.0	25.8	—	1.5	0.8	—	100.0
		계	29.9	37.2	25.3	3.4	2.7	1.0	0.4	100.0
비농가	남	33.3	36.7	11.1	5.6	8.9	4.4	—	100.0	
	여	37.1	40.4	15.2	—	4.5	2.8	—	100.0	
	계	35.8	39.7	13.8	1.9	6.0	3.4	—	100.0	
평	남	20.5	38.1	21.3	10.8	6.4	2.0	0.9	100.0	
	여	37.7	36.1	23.1	—	2.0	1.1	—	100.0	
	계	32.8	36.6	22.6	3.1	3.3	1.3	0.3	100.0	
도시출신	남	21.2	48.6	—	13.7	7.5	2.1	6.8	100.0	
	여	35.2	59.4	—	—	3.9	0.8	0.8	100.0	
	계	27.7	53.6	—	7.3	5.8	1.5	4.0	100.0	
총계	남	20.7	41.1	15.0	11.7	6.8	2.0	2.7	100.0	
	여	37.4	39.1	20.1	—	2.2	1.0	0.2	100.0	
	계	31.9	39.8	18.4	3.9	3.7	1.4	0.9	100.0	

*학교문을 나와 새로운 경제활동인구로 참여한 종업원.

그 다음의 順位로 나타났다. 한편 非農家出身은 工場從業員과 學生出身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었다.

다른 한편 農村出身 女子從業員의 경우, 在村農家出身은 學生出身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었고, 離村農家와 非農家出身은 工場從業員과 學生出身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農村의 工業開發은 工場從業員出身과 새로이 경제활동인구로 참여하는 學生出身을 주로 많이 고용하였기 때문에 農村勞動力의 都市集中을 억제하는데 크게 기여했지만, 농업생산 활동에 종사하였던 農業勞動力에 대한 就業機會는 擴大하지 못했으므로 분명히 農外所得增大에 는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V. 農家出身 從業員의 農家背景과 移動性向

여기서는 在村農家出身 및 離村農家出身 勞動力의 農家經營規模와 家族關係 및 移動性向을 分析하려고 한다.

〈表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農家階層別 農家出身 從業員의 分布를 보면, 在村農家出身 從業員의 構成比는 耕地規模가 큰 農家階層일수록 減少現象을 보여 주었고, 이와 반면에 離村農家出身 從業員의 構成比는 2.0정보까지 耕地規模가 擴大됨에 따라 增加現象을 보여 주었으나, 2.0정보 이상의 대농계층에서 크게 減少하고 있다.

따라서 在村農家出身 從業員의 構成比는 5.5정보 미만의 零細小農層에서 가장 높은 35.1%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 반면에 離村農家出身 從業員의 構成比는 1.0~2.0정보의 中農層에서 가

表 11 耕地規模別 農家出身 從業員의 分布

경지규모별	재촌농가	이촌농가	계
0.5 정보미만	35.1	26.7	28.8
0.5~1.0	30.3	28.8	29.2
1.0~2.0	23.4	30.7	28.9
2.0 정보이상	11.2	13.8	13.1
평균	100.0	100.0	100.0

장 높은 30.7%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1.0정보 미만의 小農層에서 在村農家出身과 離村農家出身 從業員의 構成比가 각각 65.4%와 55.5%를 차지하고 있었으므로, 龜尾工團의 경우 農村의 工業開發은 耕地規模가 영세한 小農層의 勞動力에 대한 就業機會를 크게 擴大하였다고 볼 수 있다.

1. 農家出身 從業員의 家族關係

그러면 農家家口員 중에서 누가 工場從業員으로 就業하고 있는가를 究明하기 위하여 農家出身 從業員의 家族狀況을 <表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分析하였다.

在村農家出身 종업원은 4人 이하와 5人의 子女를 가진 農家에서, 離村農家出身 종업원은 4人 이하와 6人의 子女를 가진 農家에서 각각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었으며, 農家戶當 子女人員이 많은 農家일수록 農家出身 종업원의 構成比가 減少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耕地規模가 큰 農家일수록 農家出身 종업원의 構成比가 減少되고 있었다는데 반하여, 戶當子女人員은 耕地規模가 큰 農家일수록 크게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農家出身 종업원에 대한 家族關係를 보면 <表 13>에서 보는 것처럼, 在村農家出身 종업원은 農家家口員 중에서 長男과 次女가 가장 많이 취업하고 있었고, 離村農家出身 종업원은

表 12 戶當子女人員別 農家出身 從業員의 分布*

구 분	4인이하	5	6	7	8	9	계
재촌농가	28.0	26.8	23.6	12.2	3.7	5.7	100(246)
이촌농가	25.3	26.7	25.9	12.3	5.5	4.3	100(748)
평균	26.0	26.8	25.4	12.3	5.0	4.6	100(994)

*호당평균 농가가구원 중 자녀인원.

長男과 長女 및 次女가 가장 많이 就業하고 있다. 특히 在村農家出身 남자종업원은 長男이 46.8%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就業率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耕地規模가 영세한 小農層에 영농의 후계자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長男이 工團에 就業機會를 擴大하고 있는 현상은 耕地規模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農業所得으로 農家所得을 증대할 수 없어 農外就業機會를 확대하여 農家所得을 증대시키려고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表 13 戶主와의 關係別 農家出身 從業員의 分布

호주와의 關係	남자종업원			여자종업원		
	재촌농가	이촌농가	평균	재촌농가	이촌농가	평균
첫째	46.8	38.8	41.2	35.4	36.6	36.3
둘째	29.1	31.7	30.9	40.4	35.5	36.6
셋째	17.7	16.9	17.2	14.3	17.6	16.9
네째이하	6.3	12.5	10.7	9.9	10.1	10.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 離村農家出身 종업원의 移動性向

離村農家出身 종업원에 대한 離村期間을 분석해 보면 <表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36개월 전에 離村한 종업원의 構成比가 50.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2개월 전에 離村한 從業員의 構成比가 28.8%로 그 다음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耕地規模로 離村農家出身 從業員의 離村期間을 分析해보면, 耕地規模가 큰 농가일수록

表 14 耕地規模別 離村時期別 離村農家出身 從業員의 分布
단위 : %

경지규모별	이촌 시기별 종업원의 분포				계
	12개월전	12~24	25~36	36개월이상	
0.5정보미만	24.6	10.2	10.2	55.0	100.0
0.5~1.0	28.0	11.1	14.6	46.3	100.0
1.0~2.0	32.0	9.7	9.1	49.2	100.0
2.0정보이상	32.1	9.9	6.2	51.8	100.0
평균	28.8	10.3	10.6	50.3	100.0

最近에 離村한 從業員의 相對的 比重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耕地規模가 영세한 小農層에서는 24개월 전에 離村한 從業員의 상대적 比重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耕地規模가 영세한 小農層 勞動力의 農外就業機會를 얻기 위한 職業移動性向이, 大農層 勞動力보다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일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農村의 工業開發은 大農層보다 小農層 勞動力에 대한 就業機會를 보다 먼저 擴大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한편 離村農家出身 從業員에 대한 移動性向을 분석하기 위하여, 고향에서 현재 종사하고 있는 職場과 같은 事業體가 入住稼動한다면 그 職장에 就業하기 위하여 귀향할 意思가 있는가에 대한, 離村農家出身 從業員의 反應을 分析하였다. <表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離村農家出身 從業員 中에서 63.6%가 귀향을 희망하고 있었으며, 특히 中農出身의 從業員이 귀향하여 취업하기를 가장 강하게 희망하고 있다. 이와 반면에 大農과 小農出身이 귀향하여 취업하기를 가장 적게 희망하고 있다.

한편 年齡別, 教育水準別로 귀향취업에 관한 反應을 分析해 보면, 30~34세의 연령층에서 귀향취업을 희망하는 從業員이 74.2%로 가장 강하게 나타났고, 35세 이상의 年齡層에서 귀향희

表 15 耕地規模別 離村農家出身 從業員의 歸郷希望
(현재 취업지중의 사업체가 고향에 설립된다면)

경지규모별	종업원의 분포		
	희망	비희망	계
0.5정보미만	61.2	38.8	100.0
0.5~1.0	63.1	36.9	100.0
1.0~2.0	67.9	32.1	100.0
2.0정보이상	59.4	40.6	100.0
평균	63.6	36.4	100.0

表 16 年齡別 離村農家出身 從業員의 歸郷希望

연령별	종업원의 분포		
	희망	비희망	계
19세미만	65.2	34.8	100.0
20~24	62.7	37.3	100.0
25~29	67.9	32.1	100.0
30~34	74.2	25.8	100.0
35세이상	52.0	48.0	100.0

망자가 52.0%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表 16>.

반면에 教育水準別로 分析해 보면, 教育水準이 높은 從業員일수록 귀향하여 취업하기를 강하게 희망하였고, 教育水準이 가장 낮은 國卒 이하 출신이 가장 약하게 귀향취업을 희망하고 있다 <表 17>.

다른 한편 職種別로 從業員의 귀향취업에 대한 反應을 分析해 보면, 사무직의 從業員이 귀향하여 취업하기를 가장 강하게 희망하였고, 이와 반면에 下位職으로 볼 수 있는 잡급직의 從業員이 귀향하여 취업하기를 가장 적게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18>.

따라서 農村의 工業化가 촉진되었을 때, 都市地域으로 就業機會를 얻기 위하여 離村하였던 農村出身 技能人力은 고향으로 귀향하여 취업하게 될 것이므로 工業部門에 필요한 人力確保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한편 農村의 工業化가 확대되면, 農村에 남아 있는 勞動力의 都市集中을 억제하고, 또한 都市로 離村

表 17 教育水準別 離村農家出身 從業員의 歸鄉希望

교육수준별	종업원의 분포		
	희망	비희망	계
국졸이하	52.8	47.2	100.0
중졸	67.0	33.0	100.0
고졸	77.2	22.8	100.0
대졸	100.0	—	100.0

表 18 職種別 離村農家出身 從業員의 歸鄉希望

직종별	종업원의 분포		
	희망	비희망	계
사무직	69.2	30.8	100.0
기술직	64.7	35.3	100.0
기능직	64.5	35.5	100.0
잡급직	59.4	40.6	100.0

한 勞動力을 귀향시킬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都市人口分散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展望된다. 특히 農村의 工業化는 大都市 人口分散으로 國土의 均衡發展을 촉진하고 또한 農外所得增大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VI. 結 論

本研究는 農業部門에서 工業發展을 위하여 어떠한 勞動力을 얼마 만큼 供給하고 있었으며, 또한 工業의 地方分散化에 따른 農業勞動力의 雇傭增大를 制約하는 諸問題點들이 무엇인가를 究明하는데 主目的이 있었다.

本研究를 수행하기 위하여 龜尾工團을 하나의 事例研究 對象地域으로 선정하고, 여기에 就業하고 있는 종업員의 出身背景, 性格을 비롯하여 이들 工業勞動力의 供給地域과 供給形態를 分析하였다.

이와 같은 分析結果에 의하면, 總調查 종업員 중에서 農村出身 종업員의 比重은 분명히 都市出身 종업員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龜尾工團은 農村出身勞動力의 雇傭增大에 크게 기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工團에 農村勞動力의 就業形態가 出退勤・通勤形態로 확대된 것이 아니라, 離村形態로 크게 확대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類型의 農村勞動力 고용증대는 기대했던 것만큼 農外所得增大에 기여하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龜尾工團의 경우 勞動供給地域圈은 工團周邊地域을 비롯하여 他道地域, 특히 서울, 釜山, 大邱 등 大都市地域까지 크게 확대되고 있었다. 그리고 사무직과 기술직의 高等技能人力은 주로 大都市地域에서 供給되고 있었다.

따라서, 農村의 工業開發은 工團周邊 農村의 勞動力에 대한 고용증대는 물론, 都市로 離村하였던 農村出身 勞動力이 귀향이동하는 現象을 나타내기도 했고, 都市出身 勞動力이 地方으로 逆流移動하는 現象을 야기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農村의 工業化는 農村出身 勞動力의 都市集中 現象을 억제하고, 특히 大都市勞動力의 地方分散에도 크게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겠다.

한편, 農村의 工業化政策으로 農村勞動力의 就業機會를 확대하여 農外所得을 확대하려는 데 있어서 제기되는 問題點과 그 對策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工團周邊 農村地域은 勞動力을 供給하는 중요한 地域으로 究明되었으나, 工團과 그 주변 農村地域間을 연결하는 도로망과 교통망 때문에 農村의 外部經濟가 非効率적으로 開發되어, 工團에 대한 農村勞動力의 供給形態가 離村就業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工團에 農村勞動力의 출퇴근 취업권을 擴大하기 위해서는 農村의 外部經濟開發 問題를 農村工業化政策의 課題로 연구·검토해야 될 것이다.

2) 工團周邊 農村에서 供給되고 있는 勞動力의 教育水準은 상대적으로 都市出身 勞動力보다 낮았으며, 또한 技能人力의 勞動力도 적었다. 따라서 技術습득 과정에 있는 半숙련공이나 견습공으로 주로 많이 취업하고 있었으며, 특히 30세 이상의 長年層 農業勞動力은 주로 階級적으로 취업하고 있다.

따라서 農村勞動力에 대한 就業機會를 擴大하고, 또한 사무직이나 技術직과 같은 上位職에 就業機會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農村의 靑少年層 勞動力에 대한 工業系 및 商業系 人力開發을 위한 학교교육기관이나 또는 農村職業訓練所를 設立하고 운영해야 될 것이다. 특히 長年層의 農業勞動力을 工業勞動力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技能工養成을 위한 成人職業訓練所를 工團周邊 農村地域에 설립해야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農村의 工業部門에서는 長年層의 農業勞動力이 就業할 수 있는 職種分野를 開發해야 될 것이다.

3) 24세 미만의 女性勞動力에 대한 就業機會를 확대시키는 農村의 工業開發은 農家側에서 볼 때 지속적으로 農外所得增大에 기여할 수 없으므로, 男性勞動力의 고용증대를 創出하는 業種을 農村地域으로 誘致하고 促進해야 될 것이다. 또한 30代 이후의 結婚한 農村女性들의 就業機會를 擴大할 수 있는 業種을 誘致해야 될 것이다.

4) 農村의 工業開發은 農家階層面에서 볼 때 耕地規模가 영세한 小農階層勞動力에 대한 就

業機會를 擴大하는데 기여하였으나, 이들 勞動力은 주로 영농경험이 없는 24세 미만의 靑少年과 靑長年層이었다. 따라서 技能을 보유하지 못한, 그리고 현재 農業에 중사하고 있는 勞動力의 就業機會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農村의 工業開發政策으로 農外所得을 增大하려면 영농중사자출신에 대한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綜合的인 技能人力開發政策을 農村의 工業化政策課題로서 신중히 연구·검토해야 될 것이다.

5) 離村農家出身 종업원 중에서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단일 자기 고향에 현재와 같은 職場이 마련된다면 귀향하여 취업하기를 희망했다.

따라서 工業의 地方分散이 擴大되었을 때 工業部門에 필요한 人力確保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요컨대, 技能人力 開發과 雇傭機會의 創出이 問題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고용기회가 農村地域으로 분산되면, 大都市人口 分散으로 國土의 均衡發展을 促進하고 또한 農外所得增大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參考文獻〉

1. 金秀坤, 「勞動供給과 失業構造」, 韓國開發研究院, 1976.
2. 崔洋夫, 「農外所得增大方案에 關한 研究」,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78.
3. _____, 「農家所得增大方向에 關한 理論的 檢討」, 「農村經濟」, 1卷 2號,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78. 8, pp. 109~120.
4. 黃弘道, 「農外所得增大를 위한 政策方向」, 國立農業經濟研究所, 農業經濟研究報告 97, 1978.
5. 龜尾輸出產業工團, 「龜尾工業基地 現況」, 1978. 12. 31.